

악재 겹겹... 소비심리 '뚝'

유럽발 위기·경기침체 지속에 불안감 확산 지역심리지수 전달보다 4P↓...전부분 악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지표인 소비심리지수(CSI) 등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지역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유럽발 위기와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의 경제지표 부진 등의 여파로 국내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6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발표에 따르면 '2012년 6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달 광주·전남지역 소비심리지수는 104로, 전월보다 3포인트 떨어졌다.

소비심리지수가 100을 넘으면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기대심리가 긍정적임을, 100을 밑돌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광주·전남지역 소비심리지수는 지난해 12월 99로 다소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가 2월(102), 3월(104), 4월(103), 5월(107) 증가세를 보인 후 이달 들어 4포인트 하락했다.

6개월 전과 비교한 현재생활환경 CSI는 92로 전월과 같았지만 6개월 후 생활환경전망CSI는 100으로 2포인트 빠졌다.

6개월 후 가계수입전망CSI는 97로 전월(101)보다 4포인트 감소했다.

소비지출전망CSI도 전월보다 3포인트 하락한 104를 기록했다. 교육비, 의료보건비, 교통통신비 등 대부분 항목의 지출이 줄어든 것으로 보는 응답비중이 전월보다 많았다.

가계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

광주·전남지역 소비자의 현재경기판단CSI는 전월 80에서 72로 8포인트나 떨어졌고, 향후경기전망CSI는 92에서 81로 무려 11포인트나 하락했

다.

지역 소비자들은 6개월 후 경기에 영향을 줄 요인으로 유가 등 물가수준(53%), 수출·환율(27%), 고용사정(8%)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수출·환율을 주된 요인으로 응답한 비중은 전월 보다 17%포인트나 증가했다.

취업기회전망CSI도 80으로 전월과 비교해 13포인트나 떨어지면서 전국 평균(88)을 밑돌았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줄이고 있는 등 현재 경기와 미래에 대한 경기전망이 어두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142)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던 물가수준전망CSI는 135로 전월보다 1포인트 늘었다.

금리수준전망CSI는 105로 전월(111)보다 6포인트 떨어졌다. 대외적인 불확실성 고조와 경기 변동성 확대 등으로 인해 시중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전월보다는 줄었다고 본 것이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불황의 늪... 보험가입도 줄었다

최근 경제난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보험 가입이 감소한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의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구 보험가입률은 96.1%로 전년 대비 1.9% 포인트 줄어 2010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손해보험의 가구 가입률은 작년보다 4.2% 포인트나 감소한 87.2%였다.

소득이 낮을수록 보험가입률은 더 떨어져 저소득 가구는 86.7%로 전년 대비 6.1%나 줄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보험 가입

률 감소는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소득이 줄어든 게 큰 것 같다"라면서 "가구 소득에 따른 보험 가입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말했다.

향후 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는 답변도 감소했다. 1년 내 생명보험 가입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64.3%로 7.4% 포인트 늘었고 손해보험은 49.1%로 15.0% 포인트 증가했다.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험 상품 권유'항목이 5점 만점에 4.13점을 받는 등 대체로 설명 의무를 충실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험 상품 및 약관 이해도'는 3.87점으로

낮았다.

금융상품은 정기예금, 직접투자, 펀드, 자유저축 순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월평균 보험금 납부액은 보장성 보험이 34만 원, 저축성 보험이 29만 원으로 조사됐다.

소득 이상의 자금이 필요할 때 우선 해결하는 금융상품으로는 자유저축이 응답자 중 62.4%, 펀드가 17.1%, 보험이 12.0%를 차지했다. 금융기관에 대한 전반적 이미지는 10점 만점에 7.60점으로 가장 좋았고 보험사가 7.32점으로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꿈나무들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25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점장 류민열·사진 왼쪽 첫번째)이 광주시 남구 주월동 선명학교(교장 김홍일·사진 가운데) 문헌정보실에서 희망도서 기증식을 가졌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롯데백화점, 광주 학교 3곳에 도서 3천권

롯데백화점 광주점(점장 류민열)이 롯데강학재단과 함께 광주지역 학교 3곳에 도서 3000권을 기증(사진)했다.

백화점은 지난 25일 선명학교(800권)·용봉중학교(1200권)·방림초등

학교(1000권)에 모두 3000권을 전달했다.

이번에 기증한 도서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판업북을 비롯해 역사 등 교과 관련도서 위주로 선정했다. 도서 기증은 백화점이 지역 교육발

전을 위해 펼치는 사회공헌활동 일환으로 학생들의 독서 능력 향상과 교양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백화점측은 설명했다.

류민열 롯데백화점 광주점장은 "도서 기증을 통해 지역 학생들의 자기 독서환경 조성 및 지식·정보 습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은미기자 emlee@

“민영화 된다면 방식 개의치 않겠다”

이팔성 우리금융 회장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26일 우리금융의 조속한 민영화를 촉구하며 "어떠한 방식의 민영화든 개의치 않는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본사에서 열린 우리나라문화재단 장학금 전달식 참석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계적으로 우리금융처럼 민영화하는 데 오래 걸린 곳은 없다"며 "KB금융지주와 합병을 하든지, 컨소시엄이 인수하든지 상관없다"고 말했다.

KB금융과의 합병에 대해서는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바람직할 것"이라며 "스웨덴 노르디아뱅크의 사례를 언급했다.

정부 공적자금이 투입됐던 노르디

아뱅크는 블록세일, 자사주 매각 등의 방식이 모두 실패하고서 덴마크, 핀란드 등 국의 은행과 합병통해 공적자금 상환에 성공했다.

이 회장은 "국의 은행과 합병해서도 공적자금을 상환하는 데 국내 합병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KB금융 외에 (우리금융 인수에) 관심 있는 지주사가 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1억 5천만 마르크 독일 차관 유치

광주권 지역경제 운동사 <20>

나주 호남비료 유치 도민운동 ⑥

▲분단국의 동병상련

1961년 6월1일 산업 관련 입법 제1호를 공포해 나주호비를 인수한 5·16 혁명정부는 그 동안 중단됐던 건설공사를 제기하는 한편 나주호비 건설을 포함한 5대 국가발전사업(본란 2012년 6월 18일차 참조)

분단국이라는 점과 전후 '라인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독일 정부도 한국의 분단상황에 대한 동병상련과 한국의 경제현실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토대로 차관교섭에 임했으며 실무적인 기초조사

또 광부는 국민소득 향상으로 대표적인 기피업종이 되면서 인력난이 심각해지면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빚었다. 이러한 형편에 독일이 차관을 주는 대신 인력을 달라며 한국 정부에 손을 내밀게 됐고 한국 정부도 당시 40%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실업률에 허덕이고 있는 터라 생방의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 것이다.

▲저관 줄데니 인력 달라

더구나 독일 정부가 한국 인력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파독 한국 간호사들의 역할이 컸다.

독일은 1957년 종교단체와 민간 단체를 통해 서독 병원 3년제 부속 간호학교에 한국 학생 150명을 받아들여 연수를 거친 후 취업케 했는데 파독 한국간호사들의 성실하고 친절한 근무태도와 뛰어난 적응력이 독일 의료계의 높은 평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독 양국 정부의 인력 지원협상은 광부 5000명, 간호사 2000명 등 파송 규모까지 구체적인 의견접근을 보였으나 상업차관 교섭은 마지막 단계에서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핵심적인 문제는 한국 정부의 지불보증이 구체적인 신용기준에

미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독일 정부의 차관 공여 방침에도 결정적인 단계에서 지불보증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교섭 창구인 양국의 실무진이 기발한 지불보증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독일의 파송된 광부 및 간호사의 임금을 독일 은행에 3년간 예치하는 조건이었다.

▲광부·간호사 7000명 파독
독일 정부는 확실한 현금담보를 확보하고 한국의 인력지원을 안정적으로 보장받는 길이었다. 한국 정부도 추가지불보증이나 대채 보증 없이 차관교섭의 결정적인 장벽을 제거할 수 있었으며 인력 파송으로 막대한 외화까지 벌어들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한국정부는 인력지원 문제와 지불보증 조건을 매듭짓고 1억5000만 마르크(약3500만달러)의 차관획득에 성공한다.



위중 (연문인)

한국 광부·간호사 7000명 파독 조건

독일 지불보증요구 임금 담보로 성사

을 추진하기 위해 독일 정부를 상대로 차관 교섭에 나섰다.

당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2300만 달러에 1인당 국민소득이 79달러로 태국의 260달러나 필리핀의 17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한국에 차관을 줄 나라는 없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서독 정부와의 차관 교섭에 희망을 걸고 있었던 것은 독일이 한국과 같이

등 지루한 교섭 끝에 1억5000만 마르크(약 3500만달러)의 차관을 얻게 됐다.

이 때 독일 정부의 차관 결정을 이끌어 내는데 가장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파독 간호사와 파독 광부들이다. 당시 서독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어가는 과정에 간호사 인력난이 심각해 크고 작은 병원들이 병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www.mokpofestival.com

빛의 향연!! 낭만의 바다!!

2012 목포 개항 문화축제

2012 MOKPO MARITIME CULTURAL FESTIVAL

평화광장 및 삼학도 일원
8.3(금)~8.7(화)/5일간

주최 목포시 MOKPO CITY
주관 목포시축제추진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진라남도
한국관광공사